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노명환**

1. 머리말
2.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기록관리 제도의 필요성
 - 1) 역사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실증사학
 - 2) 역사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실증사학의 발전
 - 3) 실증사학과 근대 독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3. 지벨과 레만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와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
 - 1) 지벨과 레만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
 - 2) 1881년의 “국립 비밀 기록원에서의 정리업무를 위한 규정 (Regulative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
 - 3)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정립의 의의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06년 6월 17일 한국기록학회 원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로서 발표문의 부족했던 점을 많이 지적해주시고 여러 유의한 관점들을 제기해 주셨던 경북대 김유경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1881년 독일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의 보존 기록 정리를 위한 규정에서 제정된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 일정 부분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중반에 정립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학문적 목적과 방법에 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체적 유기적 관계에 놓인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역사의 개별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의는 실증사학의 연구 방법에서 이론적 토대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사학 전통은 기록 관리의 체계적인 체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사 사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입체성을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은 그 귀결이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위해 필자는 랑케로 대변되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내용과 그 정립과정 그리고 랑케의 제자인 지벨과 그의 제자인 레만의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을 분석·서술하였다.

주제어 : 역사주의, 실증사학,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 기록 관리,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1. 머리말

본고에서는 랑케 (Leopold von Ranke)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1880년대에 독일에서 정립된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상관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역사서술을 위해 기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보다 체계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기록 문서들에

대한 관리가 도서들에 대한 그것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후자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 낱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의 상호 연관성과 그로 인한 전체의 맥락을 보존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기록 관리의 이러한 특징은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이라는 정리방법으로 수렴되고 그 결정체를 이루었다. 그런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은 바로 이러한 기록관리의 토대 위에서만 그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제 연관관계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역사주의 실증사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역사연구 방법과 이론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라는 기록관리 이론의 형성과 연관되며 그러한 결과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또한 독일의 등록소 원칙 (Registraturprinzip)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계 그리고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 본다.

19세기 독일의 역사에서 이 과정을 추적하고 자 하는 필자는 특별히 당시 베를린 소재 프로이센 국립 기록원 (Staatsarchiv)과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Geheimen Staatsarchiv)의 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던 당대 유명한 역사학자 지벨 (Heinrich von Sybel)의 역할과 그의 제자로서 아키비스트가 된 레만(Max Lehmann)의 업적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이미 1950년에 기록관리 전문 역사가 포스너 (Ernst Posner)가 발표하였다.¹⁾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는 역사주의 실증사학과의 상관관계는 물론 지벨의 역할에 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레만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략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1881년 7월 1일에 제정된 프로이센

1)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의 “국립 비밀 기록원 정리업무를 위한 규정 (Regulative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²⁾의 등장 배경과 내용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못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너의 연구는 기록학을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의식을 학문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화두였다. 특히, 당시에 미국에서는 실무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에 주로 그 연구가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개척자적인 의미를 가졌다.

포스너 (Ernst Posner)는 1950년의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기록학 이론의 정립을 도왔던 역사 사고의 경향, 이러한 이론들이 실용의 방법으로 정립되는 과정과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여 기록관리학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척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부족하였다.”³⁾ 필자가 2006년에 본 논문을 집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일견한 바 포스너의 진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러하다.

2.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기록관리 제도의 필요성

1) 역사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실증사학

역사주의 실증사학이란 역사주의에서 연원한 실증사학을 의미한다. 그러면 역사주의란 무엇인가? 역사주의 (Historismus)라는 용어는 19세기 중엽부터 간혹 언급되는 정도로 사용되었고 20세기 초에 학문적인

2) 이 규정은 1841년 공포된 프랑스의 “풍 존중의 원칙 (respect des fonds)” 그리고 1898년에 네덜란드에서 3인의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출간된 매뉴얼과 함께 서양의 현대 기록관리 방법과 이론의 체계적인 출발점이 되는 3대 원천 중의 하나가 되었다.

3)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36.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트뢴취 (Ernst Trölsch)⁴⁾와 만하임 (K. Mannheim)⁵⁾ 그리고 마이네케 (Friedrich Meinecke)⁶⁾가 역사주의에 관한 논저들을 출간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그 후속으로 많은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사주의의 사상적 근거는 이미 17세기에 마련되었고 18세기에 그 형성 단계를 거쳐 19세기에 하나의 역사관 및 세계관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역사적 형성체였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주어지는 경험에 따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본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사물이나 생명체라도 시간의 경과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주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개체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주의의 개체사상은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단자라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과 개별적인 신앙에 의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신교의 경건주의 등에 그 뿌리를 두었다. 더욱이 역사주의에 의하면 역사전개란 한 생명체가 생성, 성장 그리고 소멸하는 유기체와 같은 과정을 의미했다.⁷⁾

따라서 역사주의 사상가들은 역사 속의 모든 것은 끊임없는 생성·변화 속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그 생성·변화하는 생의 원리는

4) Ernst Trölsch, *Der Historismus und seine Probleme*, Berlin 1922/ *Der Historismus und seine Überwindung*, Berlin 1924.

5) K.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Frankfurt/M 1929.

6) Friedrich Meinecke, "Die Entstehung des Historismus," in: *Friedrich Meinecke Werke*, München 1959. (1936년에 첫 출간됨).

7) 이러한 유기체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사를 이해하고 자 한 대표적 역사가가 토인비 (A.J. Toynbee)와 쉬펜글러 (Oswald Spengler)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Study of History) 라는 대작에서 세계사를 제 문명이 생성, 성장, 쇠퇴 그리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쉬펜글러는 서구의 몰락 (Untergang des Abendlandes) 이라는 그의 주저에서 세계사를 문화의 생성, 성장 쇠퇴 그리고 소멸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들은 역사주의가 다른 한편으로 표방한 철저하게 기록들에 의거한 고증을 앞세우는 실증사학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각자 고유한 역사적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비코는 자연을 신에 의한 창조물로서 완성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그는 역사를 인간이 그 발전의 형식과 내용을 창조해 가면서 언어, 관습, 법률, 정치제도 등의 체계를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몽테스키외(Charles Baron de Montesquieu)는 그의 핵심 연구 대상인 각국의 법을 토지, 기후, 종교, 풍습, 민족적 성향 등의 자연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형성된 각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의 산물로 인식했다.⁸⁾

이러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역사주의는 역사의 단위와 그 동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그리고 자연법사상과 세계보편성의 원칙에 반해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단선형의 역사 발전과 진보라는 역사관을 거부했다.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개체 사상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사주의 사고의 바탕을 일구어 갔다. 이리하여 그는 독일의 역사주의/민족주의 사상 체계의 그리고 그 운동 전개에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1774년에 출간한 저서 <<인류교육을 위한 역사철학>>에서 인간 개인을 역사의 주체 행위자이자 문화의 창조자로 보고 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승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은 각각 고유의 정신적 통일체 단위로서 자체의 “타고난, 혹은 자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특성이 또한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각 민족 고유의 민족정신을 형성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이 민족정신은 각 민족문화의 구체적인 표현체들인 예술, 도덕, 법질서, 특히 언어와 시 등에 일관되게 배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족을 성장, 발전하는 자체의 생의 형식을, 즉

8)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법의 형성에 대한 이론은 빙켈만(J. Winckelmann)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지벨(Heinrich von Sybel)의 스승이었던 자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 같은 독일의 역사주의 법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역사 법학파를 설립하는데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 나름의 고유한 영혼과 생애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이리하여 각 민족이 이룩한 정치행태와 사회제도들은 독자적인 가치와 특성을 수반하는 역사적 전통에 기초한다고 보았다.⁹⁾

따라서 그에 따르면 삶의 본질과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 속에 있는 각기 고유한 민족문화를 구체적인 역사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랑케는 <<근세사의 여러 시기들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칸트와 헤겔이 계몽사상의 계승자로서 전개한 인간 이성의 힘에 의거한 보편주의 진보사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대론을 펴면서 개체주의 역사관을 주창하였다. 랑케는 역사세계가 스스로 발전하는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각 시대의 가치도 그것이 이룩한 바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존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는 개체들로서의 “모든 시대는 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Jede Epoche ist unmittelbar zu Gott)”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는 신이 역사 일반을 주재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치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자 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각 시대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순간 그리고 민족 등의 개체들이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본질들이다. 그러면서도 이 개체들이란 별개의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전체와의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는 보편성을 또한 띠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또한 당시의 보편주의 역사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목적론적 역사관찰을 거부했다. 그는 모든 시대들이 각각의 본질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 속의 법칙을 추구하는 연구나 역사를

9)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270-71.

10) 차하순, “역사주의 사관”, 차하순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논단 1978, p. 54-55.

논리화시키는 법칙론적 연구방법을 열정적으로 반대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연구는 모든 시대, 문화, 제도를 해당시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해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역사주의 세계관과 연구방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과 강연들을 통해 제시하고 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랑케는 개체성 사상과 역사학적 연구방법을 밀접한 상관관계로 정리하여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역사연구란 개체들의 발전과정을 그와 상관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실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었다. 랑케에게서도 역사세계 내 개체의 기본적 단위는 헤르더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이었다. 이것이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랑케의 역사주의 세계관과 실증사학의 연구방법론은 19세기 많은 역사가들 그리고 또한 언어학, 문학, 법학, 경제학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각 학문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학과 (Historische Schule)”들을 형성시켰다.¹¹⁾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학문 방법을 응용한 연구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 볼프 (F.A. Wolf)의 <<호머연구>> (1795), 아이히호른 (K.F. Eichhorn)의 <<독일국가사와 법제사>> (1803-23, 4 Bde.), 자비니(F.K. Savigny)의 <<중세 로마법의 역사>> (1815-17), 그림 (I. Grimme)의 <<동화들>> (1812)과 <<독일언어사>> (1848) 등과 같은 고전문학, 법제사, 독일어문학 등이 있다.¹²⁾

이러한 독일의 역사주의는 낭만주의와 결합되었다. 독일의 낭만주의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과 대혁명이후 등장한 정치·사회 변혁들에 반발

11)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274-78. 본 논문의 주 연구 대상 중의 한 사람인 지벨은 랑케, 자비니 등을 스승으로 둔 바로 이러한 역사주의의 계보에 속하는 혹은 이를 유산으로 계승한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12)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87-8.

하면서 전개되었다.¹³⁾ 낭만주의는 인간을 감정, 정서 그리고 비이성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개체로 보고 자연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 없이 성장·변화하는 개성체들의 집합으로 보았다. 모두가 이성에 의해 작용하는, 즉 인관과 자연에 대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한 계몽주의의 세계관에 대해 정반대의 인식론을 제시하였다.¹⁴⁾ 이렇듯 역사주의의 개체사상에 기반을 둔 독일 낭만주의 운동은 광범위한 사료수집과 편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다. 사료를 통해 독일 민족이 걸어 온 독특한 역사 과정을 파악하고 개성체로서의 독일민족의 실체를 규명하고 장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해서였다. 낭만주의 운동가들은 이렇듯 고유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찾아내어 복원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핵심의 국가·사회 사업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수집과 편찬사업은 역사주의와 낭만주의를 뿌리로 하는 독일 민족주의의 구체적 실현과정이었으며 역으로 민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증사학의 기본 토양이 되었다.

2) 역사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실증사학의 발전

지금까지 설명한 의의를 갖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사연구 방법으로서 랑케는 철저히 사료에 의거하여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역사서술을 제안했다. 즉,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사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비판·검토하고 역사 서술을 이 사료에 의거해서만 행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랑케는 제 사건의 연관관계와 배경 설명 그리고 사건의 의미 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사료에 의거한 실증의 기반위에서만 행할 것을 제

13)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279.

14) 차하순, “역사주의 사관”, 차하순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논단 1978, p. 38-39.

안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가의 사명은 원칙적으로 “원래 일어났던 것을 (Wie es eigentlich gewesen)” 재구성하는 데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엄선하고, 그 결과 확실히 증명된 것만을 사료로 채택하여 거기에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이들 사실을 종합하고 구성하여, 일체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역사서술이었다. 이러한 실증사학 학풍은 점차 그와 그의 동료 및 제자들로 하여금 소위 “랑케학파”라는 명성을 얻게 만들었다. 랑케 연구실의 3대 표어는 비판·정밀·투철 (Kritik, Präzision, Penetration) 이었다.

이리하여 랑케는 직접 관련된 문헌이나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증거물을 기초로 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학풍의 시조가 되었다. 즉, 근대 실증사학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이다. 원래 랑케 이전에도 역사가는 회상기나 연대기 등, 무언가의 재료에 의거하여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랑케는 “기록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후 독일에서는 사료비판 기술을 위주로 역사연구방법 및 이론이 현저하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이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드로이젠¹⁶⁾과 베른하임¹⁷⁾을 들 수 있다.¹⁸⁾

15) G.P. Gooch,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52 (second ed.), p. 97.

16) Johann Gustav Droysen, *Historik.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Geschichte*, 1858 (hrsg. v. R. Hübner, Darmstadt, 1960)

17) 이러한 역사연구 방법을 랑케 후대에 베른하임은 사료학 (Quellenkunde) 과 사료비판(Quellenkritik)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여기에서 그는 사료학은 사료의 수집과 정리 작업의 총괄이며 사료비판은 사료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음미임을 명시했다. E. Bernheim, *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Berlin 1926.

18) 사료비판학의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기록관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기록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당시 실증사학 그리고 특히 사료비판학의 의의를 보다 깊이 인식하기 위하여 유럽의 사료비판학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서술을 위해 직접 겪고 들었던 것만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는 실증사학의 정신을 가졌던 최초의 역사가로 불리기도 한다.¹⁹⁾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역사서술 정신은 당시에 만연된 수사학에 밀려 학풍으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르네상스시기에 이르러 문헌 연구에 충실하면서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역사가들이 나왔다. 이들은 특히 사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비판하여 사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전승되고 있는 사실들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대표적인 학자들이 박학다식을 무기로 비판적 역사학을 개척한 비온도 (F. Biondo, 1388-1463)와 그의 제자들인 칼치 (T. Calchi, 1462-1516) 와 발라 (Lorenzo Valla) 등이었다.

비온도는 고문서 연구가로서 사료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전승되고 있는 사실들의 진위를 판명하는 데 그의 학문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제자 칼치는 특히 증명서 (Urkunde)와 비문들 (Inscripfen)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역사서술에 응용하고 자 하였다. 비온도의 또다른 제자 발라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진장의 허위성에 관하여" (1440)라는 저술을 통하여 사료의 진위를 언어학적 비판을 통해 가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보였다. 그는 이 저술에서 기진장에 기록된 라틴어가 콘스탄틴 대제 시대인 4세기의 언어가 아니라 8세기의 언어라는 점을 판명함으로써 그 위증성을 증명하였다.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역사가들로서는 독일의 레나누스 (B. Rhenanus, 1486-1547), 스위스의 바디아누스 (Vadianus, 1484-155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사료비판을 탁월하게

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작업을 위한 인식 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J.W. Thompson, *A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 I, 1975, p. 29.

수행함으로써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르네상스기에 일어났던 사료비관에 의거한 연구방법 역시 또한 당시에 만연된 수사학적 학풍에 밀려 지속되지 못하였다.²⁰⁾ 그러나 이들의 업적은 당대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고문서학(diplomatics)이 발달하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사료학(Quellenkunde)과 사료비판학이 역사주의가 무르익어 가는 시기에 니부르(Barthold Georg Niebuhr)와 앞에서 소개한 랑케에 의해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정립하는 도구로서 채용되었다. 니부르는 1812-32년 <<로마사>>를 저술함에 있어서 비교연구 방법을 통해 사료비판학을 적용하였다.²¹⁾

3) 실증사학과 근대 독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는 이러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연구풍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료수집과 편찬 그리고 그 이용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역사서술이 이러한 시스템에 힘입어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1830년대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나는 현대사를 더 이상 본래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보고서나 동시대 역사가들의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서술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현대사는 목격자와 직접적인 증거문서의 조합 속에서만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는 이 직접적인 증거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랑케는 아카이브의 설립과 확대에 깊은 관심을

20)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82-84.

21) 이상신, *역사학 개론*, p. 88.

22) L. v. Ranke, *Deutsche Geschichte* I, p. 6; Volker Dotterweich, *Heinrich von Sybel. Geschichtswissenschaft in Politischer Absicht (1817-1861)*, Göttingen 1978, p. 314.

가졌다. 그는 다음 장에서 소개할 베를린 소재 프러시아 국립 비밀 기록원의 운영에도 관계를 맺었다. 독일 전체의 기록들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할 국립기록원 (National Archives)을 설치하고 자 3월 혁명의 여파에서 등장한 1848-49년의 제헌의회가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랑케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역사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에게 특별히 1850년대에 바이에른 왕 막시밀리안 II세와의 교감과 만남은 그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바이에른 왕 막시밀리안 II세가 1858년 8월 20일 “역사와 사료연구를 위한 위원회 (Kommission für Geschichts- und Quellenforschung)”를 창립하고 위원장에 랑케를 그리고 사무총장에 랑케의 제자인 지벨을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활력이 떨어진 “기원 후 500년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의 게르마니아의 역사기념 사료집 (MGH: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inde ab anno Chrisit quingentesimo usque ad annum millesimum et quingentesimum)”²³⁾을 편찬하는 대 사업을 다시 크게 활성화 시켰다. 이 MGH 편찬 활성화 사업은 독일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기념비적인 작업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원교의 교정, 내용의 검토, 색인의 정교함 등에 있어서 당대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후대의 편찬사업에 큰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료가 없다면 역사도 없다.”²⁴⁾는 유명한 언급에서 보듯 유럽 근대 역사학의 발달은 사료편찬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이미 17-8세기 경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문서학 (diplomats)이 발달되고 사료의 편찬 및 출판이 수행되었는데, 뒤늦었지만 독일에

23) G.P. Gooch,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2nd ed., London 1952, chapter V.

24) C.V. Langlois et C. Seignobos, *Introduction aux études historiques*, Paris 1905, p. 2.

서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이라는 체계적인 사상과 방법론 하에서 사료편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역사학문에서 실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랑케의 제자 지벨은 1859년에 “역사학보 (Historische Zeitschrift)”를 창간하였다. 그 초기에 지벨 자신이 편집장으로 일하였다.²⁵⁾ 랑케와 지벨의 이러한 활동은 사료편찬은 물론 아카이브들의 진흥과 발전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벨이 베를린 국립 아카이브와 비밀 아카이브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을 때 이 아카이브들은 역사주의 실증사학자들의 연구센터가 되었고 독일 기록관리 제도를 위한 이론과 실제의 산실이 되어 갔다.

3. 지벨과 레만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와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의 정립

1) 지벨과 레만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

“역사와 사료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스승인 랑케와 더불어 운영하였던 지벨이 1875년에 베를린에 있는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 원장이 되었던 것은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구체적인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1886년 랑케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벨은 “역사와 사료연구를 위한 위원회 (Kommission für Geschichts- und Quellenforschung)”의 위원장직도 겸하게 되었다.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은 1815년 비인협약 이후 프로이센 국가

25) Paul Bailleu, “Sybel”, in: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54: 645-667, Leipzig 1908, p. 657-8.

재건 기간에 설립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프로이센 기록보존소가 존재했지만 독자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기록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시점은 1815년 이후였다. 초기에 이 기록원의 원장직을 프로이센 국가 수상이 겸임했다. 이중에 유명한 인물들로서 나폴레옹 침략이후 독일의 중흥을 위해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들 슈타인(Freiherr von Stein)과 하르텐베르크(Karl August von Hardenberg) 등을 들 수 있다.²⁶⁾

이 기록원은 1852년 란시촐레(Wilhelm von Lancizolle)가 원장이 되었을 때 특히 활발히 발전하였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 법제사 교수였다.²⁷⁾ 비스마르크는 1862년 프로이센 수상이 되었을 때 이 기록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기록원 원장들을 직접 물색하여 임명하였다. 역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사료들을 출판하게 하였는데 하르텐베르크에 대한 사료집 출간에 있어서는 랑케를 총 책임자로 임명하여 수행하게 했다. 그는 또한 드로이젠을 초빙하여 프로이센 정치사에 대한 사료편집을 하도록 했다.²⁸⁾

지벨 바로 전에 원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은 둥커(Max Duncker)였다. 비스마르크는 국가기록원 원장 직무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그와 개인적 친분이 깊고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고자 했다. 둥커가 1867년에 부임하여 1875년 지병으로 인해 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스마르크는 후임으로 드로이젠(J. G. Droysen)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트라이취케(Heinrich von Treitschke)를 염두에 두었다.²⁹⁾ 그러나 이들이 모두 기록관리 행정

26) Paul Kehr, "Ein Jahrhundert Preußischer Archivverwaltung", in: *Preussische Jahrbücher*, 196: 159-178, p. 160. Kehr의 위의 글은 1924년 3월 26일 다시 문을 열 개된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의 기념식에서 당시 원장이었던 그가 이 기록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강연했던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 연설문이 후에 *Preussische Jahrbücher* 169 호에 게재되었다.

27) Paul Kehr, op. cit., p. 166-67.

28) Ibid..

의 업무보다는 자신들의 학문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에서 고사했고 결국 지벨에게 원장 직이 주어졌다. “역사와 사료 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사무총장직에서 보여준 탁월한 행정력이 인정되었고 또한 랑케 같은 역사학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³⁰⁾

당시에 유명 역사주의 역사학자, 법학자, 경제학자들이 이 아카이브에서 연구했다. 랑케, 드로이젠, 트라이취케 그리고 슈몰러 (Gustav Schmoller)도 이곳에서 많은 연구를 하였다. 후에 역사주의 이론의 완성가로서 유명해진 마이네케 (Friedrich Meinecke) 도 1880년대 후반 이곳에서 아키비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록원 열람실 실무를 담당한 마이네케가 목격하고 묘사해주는 당시 학자들의 이곳에서 작업하는 태도와 표정들은 매우 흥미롭다.³¹⁾

이리하여 베를린 소재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은 역사학문 내에서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실천하고 자 하는 역사가들 그리고 다른 학문의 역사학파들이 집결하여 자신의 연구들을 수행하는 센터가 되었다. 이들에게 아카이브는 역사적인 개체들의 발전 과정을 밝혀낼 수 있고 그와 상관된 전체와의 맥락 속에서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밝

29) Paul Kehr, op. cit., p. 171.

30) Paul Kehr, op. cit., p.171-72; Johanna Weiser, *Geschichte der Preußischen Archivverwaltung und ihrer Leiter. Von den Anfängen unter Staatskanzler von Hardenberg bis zur Auflösung im Jahre 1945*, Köln/Weimar/Wien 2000, p. 55.

31) 랑케 (L. v. Ranke)는 마이네케를 비롯한 아키비스트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서들을 가져다준다고 느낄 때는 언제나 몇 개의 손가락을 얹밧게 내밀어 우선 필요한 문서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았고 트라이취케 (Heinrich von Treitschke)와 슈몰러(G. Schmoller)는 매우 인내력 있는 아카이브 사용자들이었다. 특히 슈몰러는 매우 인내력 있게 말없이 문건들을 필사했다. 마이네케는 슈몰러의 제자로서 이미 수차례 아카이브에서 필사작업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끈질긴 의지력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했던 트라이취케는 문서들을 열람하면서 자주 주위에 소리가 들리도록 자주 감정표현을 했는데, 때로는 원하는 문서를 찾았을 때의 흥분되고 상기된 감정을 때로는 실망의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크게 표출하였다. Friedrich Meinecke, *Erlebtes 1862-1901*, Leipzig 1941, p. 138.

혀내는 역사연구 작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그들에 의해 국가기록원이 운영되었다. 독일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자 하는 정치가들이 이 국가기록원의 행정에 깊이 관여했다.

1875년 지벨은 원장 일을 시작하면서 공석이 된 한 아키비스트 직책에 그의 제자인 레만(Max Lehman)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 레만이 기록관리 원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게 된다. 레만은 1845년 베를린(Berlin)에서 태어났으며 명문 요아힘스탈쉬 김나지움(Joachimstalsches Gymnasium)에서 탁월한 중·고등 교육을 받았고 본(Bonn) 대학교에 진학하여 역사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본 대학교에서 그는 지벨의 지도를 받게 된다. 레만이 1867년 베를린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 베를린에 왔을 때 지벨이 그를 그의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프랑스 혁명에 관한 사료를 런던에 있는 영국 국립기록원(State Paper Office in London)에서 찾도록 하였다. 이때에 레만은 처음으로 아카이브 일에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그로 하여금 서유럽의 최대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또한 갖게 하였다.

따라서 레만은 역사학도로서 아키비스트가 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아키비스트로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지벨의 특별한 후원아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지벨의 구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최측근이기도 했다. 지벨은 그동안 그가 직접 맡았던 역사학보(Historische Zeitschrift) 편집 일을 레만에게 맡겼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학문적 논쟁을 즐기는 열정적인 역사학자였다. 또한 정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아키비스트가 되었다. 그는 지적인 엄격함, 커다란 열정, 타는 듯한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소유했다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회고했다. 특히, 마이네케는 레만이 사자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회고했다.³²⁾ 이러한 그의 성격이

32)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당시 기록관리 방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 1881년의 “국립 비밀 기록원 에서의 정리업무를 위한 규정 (Regulative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

당시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아키비스트들은 프랑스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프랑스 기록관리의 정리원칙이 프로이센에 도입되었고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음을 인식했다. 프랑스의 국립 기록원의 원장이 된 도누 (Pierre Daunou) 가 1808년에 고안하여 시작한 문서에 대한 정리 작업의 원칙은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문서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도누 자신이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이러한 정리 방법에 익숙해 있었다.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행정제도, 도량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프로이센은 이때에 기록관리 제도에 있어서 도누가 개발한 프랑스 시스템을 채용하였다.³³⁾ 그런데 이 프랑스의 정리 시스템, 즉 이관된 문서들을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문서 군들을 각기 다른 문서 군들로 쪼개어 분류·정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재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39; F. Meinecke's Obituary for Max Lehmann, in: *Historische Zeitschrift*, 141 (1930), p. 449-450.

33) Michel Duchein, “The History of European Archiv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chival Profession in Europe”, *American Archivist*, Vol. 55 (Winter 1992), p. 19. 나폴레옹은 또한 유럽의 모든 주요 아카이브 사료들을 파리로 집결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 이를 실행하였다.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Vom. III. Nr. 3 (July 1940), p. 163-165.

분류·정리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료 군들을 해체해 버린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보였다. 특히 당시에 역사주의 실증사학에 몰입해 있던 역사가들과 아키비스트들에게 이 약점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 역사주의 역사가들은 개체, 즉 개별 역사들의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발전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을 역사연구의 궁극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누가 개발한 문서의 정리 방식은 이들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역사주의·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프로이센 역사가들과 아키비스트들에게 이 정리 방식이 프랑스에서 개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한 견디기 힘든 정황이었다. 특히, 도누의 방법은 이들에게 독일의 역사주의의 개별성 원칙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면서도 지벨이 원장직을 맡은 1875년 시점에서도 프로이센의 아키비스트들은 쉽사리 이를 개선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합의를 보기도 힘들었고, 개편과정에서 동반되는 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841년에 “풍 존중의 원칙(respect des fonds)”을 골자로 하는 기록관리 규정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자체 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프로이센에서는 쉽게 변화가 일지 않았다. “풍 존중의 원칙”도 프로이센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³⁴⁾

34) Eckart Henning (Geheimes Staatsarchiv in Berlin Dahlem, ed.), *Geheimes Staatsarchiv. Preussischer Kulturbesitz*, Berlin 1974, p. 7-20.

이러한 시기에 그 개혁의 소임을 해내고자 한 인물이 지벨과 레만이 었다. 지벨이 책임자로서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했고, 레만이 동료 아키비스트들과 함께 대안의 방법에 대한 합의를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짰다.³⁵⁾

레만과 그의 동료들인 바일로이 (Paul Bailleu) 그리고 헤게르트 (Hegert) 등이 이 개혁의 작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의 출발점은 프랑스의 “풍 존중의 원칙” 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의 근본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프로이센 행정체도의 특징인 등록소 제도의 실제에 주목하였다. 역사적으로 프로이센에서는 각급 관청의 부서별로 등록소가 설치되어 생산되는 문서들이 이 등록소의 등록부에 등록되고 보관되도록 했다. 즉, 각 문서들은 부서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지정된 문서함에 보관되고 등록되어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문서계획 (Aktenplan)” 으로 불렸다. 등록부 관리들은 이 등록된 문서들을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되는 문서 정리 시스템은 구조적인 체계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체계는 “구조계획 (Strukturplan)” 으로 칭해졌다.

레만과 그의 동료들은 등록소 등록체계에 따라 정리·보존된 문서들이 기록원으로 이관된 후에도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들은 지벨의 재가를 얻어 1881년 7월 1일 “국립 비밀 기록원 에서의 정리업무를 위한 규정 (Regulative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레만에 의해 작성되고 지벨의 재가를 얻어 프러시아 국립 비밀 기록원 아키비스트 회의에서 정리업무를 위한 공식지침으로 채택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프러시아 국립 비밀 기록원의 정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1902년 바일로이 (Paul Bailleu)가 독일 아키비스트 회의에서 1881년

35) Friedrich Meinecke, *Erlebtes 1862-1901*, Leipzig 1941, p. 142.

규정의 등장 배경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정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thoroughgoing system of arrangement)”³⁶⁾ 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나 하는 점을 열렬히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규정의 제 2절에 의하면 “국립 비밀 기록원의 기록의 정리는 기록의 구성부분들의 출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ie Aufstellung des Geheimen Staatsarchivs erfolgt nach der Provenienz seiner Bestände.)”³⁷⁾ 는 출처주의 원칙 (Provenienzprinzip)을 규정하고 제 4절에서는 등록소원칙 (Registraturprinzip) 이라고 불리는, 즉 등록소에서 완성된 문서들의 정리 질서를 이관된 후에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소위 원질서 원칙 (Ursprüngliche Ordnung)을 규정하였다.³⁸⁾ 이 원칙에 따르면 기록원은 각 기관의 등록소 문서들을 이관 받을 때 그 기관의 문서들을 위해 배타적으로 수용할 집적구역 (Registratur)을 확보해야 했다. 이 구역내의 문서들은 등록될 당시의 질서는 물론 그 정리된 단위들에 대한 표기법 (designations)도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³⁹⁾ 만약에 이 질서가 파손되어 있다면 최대한 이를 복구해주어야 했다.⁴⁰⁾

이는 프랑스의 “풍 존중의 원칙”의 근본 취지인 출처주의 원칙을 보

36) Paul Bailieu, “Das Provenienzprinzip und dessen Anwendung im Berliner Geheimen Staatsarchive,” in: *Korrespondenzblatt des Gesamtvereins der deutschen Geschichts- und Altertumsvereine*, 50: 193-194 (October und November 1902).

37) Regulativ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 vom 1, Juli 1881, in: *Mitteilungen der Preussischen Archivverwaltung*, Heft 10 (1908), p. 16-20; Th.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1956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2002, p. 190-191.

38) Regulativ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 vom 1, Juli 1881, in: *Mitteilungen der Preussischen Archivverwaltung*, Heft 10 (1908), p. 16-20.

39) Th.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현대기록학개론), p. 191. 이 내용을 규정문에 있는 원문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Jede Behörde erhält, sobald sie Akten abzuliefern beginnt, eine ausschliesslich für sie bestimmte Repositur. Innerhalb derselben werden die Akten in der Ordnung und mit den Marken belassen, die sie im Geschäftsgange der bert. Behörde erhalten haben.”

40) Ibid..

다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었고 또한 등록소원칙에 의거하여 원질서 원칙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1881년 프로이센의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은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이 결합된, 즉 프랑스의 “풍 존중의 원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기록관리 원칙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주제 사안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수십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에 출처원칙을 갑자기 적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리 작업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는 또한 전통주의자들 (traditionalists)의 강력한 반대의 입장에 직면하기도 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이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당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하셀 (Paul Hassel) 이었는데, 그는 지벨 바로 전에 기록원 원장이었던 둥커 (Max Duncker)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아카이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⁴¹⁾ 하셀은 보불전쟁 동안 베를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로이센 관보 (Preussischer Staatsanzeiger)”의 기자로서 제 3군 (Third Army)에 종군했다. 그런데 당시 황태자 빌헬름 (Friedrich Wilhelm)이 이 3군의 사령관이었다.⁴²⁾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후에 황태자 빌헬름이 하셀을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기록원장 둥커 (Max Duncker)에게 소개하여 아키비스트로 취직시켰다. 하셀은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동료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지벨이 부임하고 레만이 들어오면서 이 두 사람이 기존의 아키비스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이는 지벨과 레만이 주도하는 1881년 7월 1일의 규정을 비교적 쉽게 통과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 그 직후 하셀은 사임했다. 1882년 7월 드레스덴

41) Friedrich Meinecke, *Erlebtes 1862-1901*, Leipzig 1941, p. 142.

42) Ibid..

(Dresden)에 있는 “왕립 주도 아카이브 (Royal Main State Archives)” 의 장으로 위촉되었다. 이것 또한 황태자 빌헬름, 후에 프리드리히 III세로서 황제가 되는 프로이센 최고위층 권력자의 총애를 받은 덕이었다.⁴³⁾

따라서 이러한 정황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지벨과 레만이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이 당시 기능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 스승인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대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지벨과 레만은 기록원 운영의 탁월한 행정가로서 명성을 날렸을 뿐 아니라, 방대한 “프로이센 국가 아카이브의 사료 출판 (Publikationen aus den preussischen Staatsarchiven)”과 “황제칙서 사본 (Kaiserurkunden in Abbildungen)”을 발간하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 MGH 편찬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것 외에 여러 주요 사료 편찬 사업에서 거대한 획을 그었다. 지벨은 “역사학보 (Historische Zeitschrift)”를 계속 레만과 함께 편집하면서 역사주의 사상과 방법론에 의거한 독일의 역사연구를 계속 선도했다.

3)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정립의 의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카이브 운영이 한결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랑케 (Leopold von Ranke), 드로이젠 (Droysen), 지벨 (Heinrich von Sybel) 등의 역사가들의 교육을 받고 아카이브에 온 기록 관리 전문가들의 역사학문에 대한 기본 사고 (historical thinking)들과 그 맥을 함께 하였다.⁴⁴⁾ 이 새로운 방법은 기술적 장점 그 이상의 것을 의

43) Ibid.; A. Rechartd, “Paul Hassel,” *Biographisches Jahrbuch und deutscher Nekrolog*, vol. 9 (Berlin 1908), p. 223-224;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41.

미하였는데, 이는 문서들이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역사사건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었다.⁴⁵⁾ 1881년의 규정에서 명시된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통해 기록보존의 전체적인 시스템은 행정기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활동들과 그 활동들의 결과 이루어진 기록물들 간의 입체적이고 유기체적인 상호 밀접한 관련성들을 나타내 줄 수 있었다.⁴⁶⁾ 이는 앞에서 설명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역사연구 방법론을 만족시킬 기록관리 시스템이 정립되는 것을 의미했다. 레만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그 심대한 의의를 회상했다: “출처원칙에 입각해서 기록들을 정리하고 조직함으로써 대단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 출처원칙이 현재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카이브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의미심장한 작업이었다.”⁴⁷⁾

현대의 기록관리 이론가들도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의 의의를 설명할 때 결과적으로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관계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켄킨슨(Hilary Jenkinson)은 공기록물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질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문서의 정리·보존 상태가 어떠한 훼손도 입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머무를 때 이 기록물들은 하나의 역사적 활동이나 과정에 대해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전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⁴⁸⁾ 즉, 그는

44)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포스너가 지적한 기록관리 이론을 둘러싼 역사 사고의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45)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41.

46) Frederic M. Miller (조경구 역),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1990,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2002, p. 34.

47)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40.

여기에서 개별 문서들의 전체와의 맥락을 살려줌으로써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상을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겠는데, 이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역사연구 방법론 및 이론과 그 궤를 함께하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켈킨슨의 이러한 관점은 철저한 출처적용과 파일링 구조의 구축을 통해 기록관리가 갖는 독특한 공정함과 유기적 특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 속에 투영되었다.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은 실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하는 데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기록물 군의 원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록관리에 있어서 핵심의 방법론이 된다는 입장은 셸른버그(Theodore R. Schellenberg)에 의해 명백히 이어진다.⁴⁹⁾ 셸른버그는 “기록물의 기능적 기원 (origin)과 관련된 정보보다 그 기록물의 내용과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주는 정보는 없다.”⁵⁰⁾ 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체계적인 총체적 증거를 필요로 하는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을 개별 입체성을 강조하는 바로 이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881년의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 규정이 출처원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질서 원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풍 존 중 원칙과 비교하면서 포스너는 1881년의 규정에 내포된 원칙을 ‘출처 원칙’으로 명명하기보다는 “원질서 준중의 원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 관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우 예리한 분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⁵¹⁾ 미셸 듀생 (Michel Duchon)은 풍 존

48)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London: P. Land, Humphries, 1937), (1922년에 첫 출간), p. 20-21.

49) Frederic M. Miller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p. 35.

50) Theodore R. Schellenberg,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p. 81.

51) 이는 앞으로 보다 상세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E. Posner,

중의 원칙이 인정된 후에 “원질서 존중의 원칙 (respect for original order)”이 1880년경에 프러시아에서 정립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포스너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었다.⁵²⁾

지벨과 레만이 프로이센 아카이브를 위해 활동했던 18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는 비스마르크의 지도력에 힘입어 독일통일이 이루어져 제 2 제국이 성립된 후의 첫 십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랑케가 주도한 역사주의 실증사학 학풍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 역사주의와 낭만주의가 결합되어 이룩된 독일 민족주의가 꽃을 피우는 시기로서 그에 따른 역사서술의 수요는 더욱 확대되었고, 새로이 설립되는 기록원 및 기록보존소들은 프로이센 국립 비밀 기록원의 기록관리 원칙들과 실재를 모델로 받아들였다. 1871년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중앙집중적인 독일 국가기록원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했으나 많은 지방의 기록보존소들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위의 원칙들을 채용하였다.

레만은 1888년 가을에 마부르크 (Marburg)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기록원 원장 자리를 기다리기 보다는 역사학 교수로서 강의와 연구에 몰입하고 자 했다. 샤른호르스트 전기 다음으로 그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7년전쟁의 기원 (Friedrich der Grosse und die Ursprünge der 7 Jahren Kriege)”을 1894년에 출간하였다. 이는 프러시아 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다.⁵³⁾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36 (각주 2번). 부정확한 번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term is admittedly inadequate because it fails to stres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new principle and that of *respect des fonds*. It has become generally accepted, however, and will be used throughout this article. ‘Principle of the sanctity of the original order’ would be more to the point.”

52) Michel Duchein, “The History of European Archiv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chival Profession in Europe”, *American Archivist*, Vol. 55 (Winter 1992), p. 19.

이렇게 볼 때 레만에게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은 크지 않은 경력에 속했다. 그의 주 관심은 역사학이었다. 그러나 그가 수행한 업적의 결과는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⁵⁴⁾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서와 같이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원칙은 역사주의 실증사학이 추구한 역사연구방법을 가장 잘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은 역사주의에서 표방하는 역사의 개별성, 즉 개별의 역사상을 전체와 관계 속에서 실증적으로, 즉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원칙들은 분류, 정리 방법으로서의 체계성과 용이함 때문만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개별성에 대한 입체적 추구라는 역사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일치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⁵⁵⁾

53) Ernst Posner,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 June 1950), p. 44.

54) Ibid..

55) 이와 관련하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주의가 극단적 독일 민족주의 전통의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은 나치체제의 등장과 함께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나치체제 몰락 후 역사주의가 역사사상으로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나치체제에 의해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가 자행된 제 2차 세계대전 후 역사사상으로서의 역사주의는 학문세계에서 더 이상은 실 땅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동시에 역사주의를 뒷받침해 주던 기록관리도 그 존재의의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부딪치게 되었다. “기록관리는 특정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류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기록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와 반성들이 일었던 것은 이와 관련하여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 실현되기 시작한 초국가주의의 유럽통합과 이에 대한 역사연구를 뒷받침할 유럽연합 아카이브의 초국가주의적 목적은 유럽 지식인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출처원칙/ 원질서 원칙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 것은 등록소 원칙이었다. 즉, 이 원칙들은 독일의 행정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서의 등록소 등록 제도가 없었다면 것처럼 정착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프로이센의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형성배경을 등록소 행정제도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어떻게 하여 독일에서는 등록소 원칙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웃나라들과는 다른 큰 특징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행정제도 내에서의 등록소 원칙의 성립과정과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등록소제도의 도입은 독일의 행정체제의 특징과 어떠한 필연성을 가졌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웃국가들과 차이를 내는 행정 문화상의 차이와 이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 제도 차이의 근본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작업과정은 기록학을 역사학의 역사, 사료학의 역사 그리고 행정제도의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을 마치면서 이러한 이해의 틀이 “왜 기록관리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더욱 정치하게 설정하면서 현재의 기록관리 방법과 이론 및 실재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체계를 정립해 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고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Abstracts

German Historicism, Positive Historical Sci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System of the 19th Century: Ranke, Sybel, Lehmann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Original Order

Noh, Meung-Hoan *

This article shows how the tradition of German historicism and positive historical scienc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German archival system, especially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original order. The theory of historicism focused on the recog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the history as a whole unit which is made up of the mutually and organically organized cultural entities. The theory of historicism as this kind of world view got its academic basis from the methodology of the positive historical science, namely the critical reviews on the archival sources which exist in mutually and organically organized record entities. In this context, the scholars of the historicism saw the establishment of the efficient archival systems as necessary. To some great degree, the emergence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and original order was its logical result.

The author of this paper tried to highlight this point of view historically, on

*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rchiv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basis of the activities of Ranke, Sybel and Lehmann around and in the Prussia Privy State Archive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Key words : Historicism, Positive Historical Science, Archival System,
Principle of Provenance/ Original Order, Prussia Privy
State Archives**